

7,8월 두달간의 실무위원 회의의 긴 터널을 어제부로 빠져나왔습니다. 한 여름을 꼬박 지새우고 이제 그 꼬트머리를 붙잡고있네요. 이제 내일이면 9월. 어젯밤엔 빗길, 야간 운전이긴 했지만 음주, 졸음 운전은 아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을 덕소에 내려드리고 제목밖에 생각안나는 낫킹콜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왔지요. Roll out the hazy, razy, crazy days of summer~~~혹 이 노래 인터넷 어디서 찾아 들어볼수있는지 아시는분들 있나요.? 돌아오는 대로 박스 뮤직에 들어가 검색해 봤는데 오래된 노래라서 그런지 못찾겠네요. 60년대 말쯤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유행했던 노래였었는데...흠,.....지가 “연장자”이긴 한가보네요. 이런 낡은 노래 타령을 하는걸 보니.

공식적으로는 아마도 창립대회에서 운영위원이 선출 되면서 실무위원회는 해체 되는것이겠지만 사실상 실무위원회는 어제로서 그 임무를 끝냈습니다. 판단력이 흐리멍텅해질 정도로 지리하기도 했고,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로 피곤하기도 했고, 서로 목에 핏줄을 세우며 큰소리가 오가기도 했던, 말 그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두달간의 실무위원 회의... 이 준비기간 동안의 우리 모두(실무위원들과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었던 회원 여러분들)의 쉽지만은 않았던 경험이 분명 미술인 회의의 , 휘망찬 앞날에, 밀거름이 될 것을, 믿웁니다. 뵙!

창립대회를 일주일 앞둔 오늘, 이제 실무위원이란 짐을 벗어버리고 홀가분한 맘으로 누가 과연 미술인 회의의 일꾼이 되어야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선 시종 일관 온갖 자질구레한 굳은일을 도맡아온 백기영님, 사무처장에 강추합니다. 누가 무어라 해도 입김의 정정엽님은 여성 소수자 위원회의 짱이 되어야겠지요. 공개 토론회에서 미술제도 정책 전반에 관해 주밀한 준비를 하여 발제를 해주신 박신의님, 정책 연구센터장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공공미술 위원회는 경합인듯싶네요, 박찬국, 박찬경. 미술 교육위원회는 정말 여러 사람이 경합일 것 같군요. 홍황기, 김인규, 윤여관... 김성원 선생님 안녕하세여? 오랫동안 못 뵈었네여. 제 생각엔 선생님이 정보교류센터장 적임자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인범, 양지연 두분이 상의하셔서 미술 문화공간 위원회를 꾸려나가세요. 뒤, 부설기관과 분과위원장 추천 제가 할 수 있는건 이 정도네요.(니가 뭘데 추천 하나고요? 여러분도 자유롭게 추천하세요. 여긴 자유게시판입니다. 자유게시판의 미덕을 한껏 발휘할 때입니다.)

아시겠지만 창립 당일날 회원님들이 선출하실 분들은 위에 거명한분들이 아닙니다. 12명의 선출직 운영위원을 우리가 뽑으면 그들이 뽑을 분들을 제가 한번 미리 추천해본겁니다. 위에 거명된 분들이 그대로 그일을 맡아야한다고 생각하시면 12명의 선출직 운영위원을 뽑을 때 윗분들은 뽑지말아야 합니다. 겸직이 안돼게 돼있거든요. 아니? 쓰다보니 아직도 실무위원 티를 내고있네...죄송합니다. 다 아시고 계실텐데... 아 그리고 안규철님과 김용익은 감사에 강강추입니다.

당일 뽑을 12명의 선출직 운영위원은 다 생각해 두셨나요? 9월 6일날 뵙겠습니다. 안봉~~~کم 쓰기전에 자두의 김밥이나 한번 들어봐야겠네.